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# 하진양문록

작자 미상 · 고전 국문 소설
2025년 10월 고1 · G202510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## 목차

**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**


| | |
|---|---|
| 표지·목차 | 1쪽 |
| 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 | 2쪽 |
| 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 | 3쪽 |
| 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 | 4쪽 |
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510H1-SR-REV20261022-R3

## 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### 암기 그림 1 · 비몽사몽 — 구름 옷을 입은 부인이 들어온다 → 모친의 당부와 옥윤의 청 — 백화를 지켜 주소서

1



2



3



비몽사몽 — 구름 옷을 입은 부인이 들어온다 → 「가문의 위태함이 누란 같아」 — 죽지 말라는 까닭 → 모친의 당부와 옥윤의 청 — 백화를 지켜 주소서

**1. 비몽사몽 — 구름 옷을 입은 부인이 들어온다** [1] [2]

비몽사몽의 옥윤 앞에 향기와 상서로운 기운을 동반한 부인이 나타난다. 죽은 어머니라는 정체는 뒤의 발화에서 밝혀지며 비범한 외양이 초월적 분위기를 만든다.

**2. 「가문의 위태함이 누란 같아」 — 죽지 말라는 까닭** [3]

어머니는 가문이 쌓은 알처럼 위태롭고 이를 회복할 책임이 딸에게 있다고 말한다. 운명의 재앙을 바로 없애지는 못해도 딸을 살리는 길은 제안한다.

**3. 모친의 당부와 옥윤의 청 — 백화를 지켜 주소서** [5] [6] [7]

어머니는 후사를 끊는 죽음을 만류하고 스승을 따르라고 권한다. 옥윤은 절개의 문제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가문의 대를 위해 백화가 안전하기를 청한다.

### 암기 그림 2 · 깨어 보니 혀가 나아 있다 — 환약의 자취 → 물에 뛰어들자 황룡이 받아 올린다

4



5



6



깨어 보니 혀가 나아 있다 — 환약의 자취 → 「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」 — 혼서와 옥가락지를 품는다 → 물에 뛰어들자 황룡이 받아 올린다

**4. 깨어 보니 혀가 나아 있다 — 환약의 자취** [8] [9]

꿈에서 환약을 먹고 깨어나니 혀의 상처가 실제로 회복되어 있다. 이 몸의 변화는 뒤에서 꿈을 단순한 거짓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.

**5. 「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」 — 혼서와 옥가락지를 품는다** [10] [11]

옥윤은 꿈의 가르침을 인정해도 곧 살겠다고 결정하지는 않는다. 몸의 형체를 보전하려 물을 택하고 관계의 증표인 혼서와 옥가락지를 지니려 한다.

**6. 물에 뛰어들자 황룡이 받아 올린다** [12]

물에 뛰어든 순간 황룡이 나타나 옥윤을 구하고 곤륜산으로 옮긴다. 죽으려 한 선택은 옥윤의 행동, 생명을 보전하는 전환은 조력자의 개입이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## 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### 1. 누란

**뜻** 쌓아 올린 알.

**배경** 累卵 누란

**작품 속 쓰임** 쌓아 올린 알. 「가문의 위태함이 누란 같아」[3] 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진다는 뜻으로, 사물에 빗대어 위기를 강조한다.



### 2. 강보

**뜻** 갓난아이를 싸는 포대기.

**배경** 襁褓 강보

**작품 속 쓰임** 갓난아이를 싸는 포대기. 「너희 남매가 강보에 싸여 있을 적에」[3] — 어머니가 죽은 때를 말한다.



### 3. 보신지책

**뜻** 몸을 보전할 계책. 모친이.

**배경** 保身之策 보신지책

**작품 속 쓰임** 몸을 보전할 계책. 모친이 「그저 슬퍼 말고」 생각하라 한 것이며, 그 계책은 「진원자를 좇아감」[5]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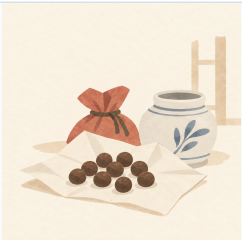


### 4. 후사

**뜻** 대를 이을 자손.

**배경** 後嗣 후사

**작품 속 쓰임** 대를 이을 자손. 「몸을 마쳐 후사를 없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」[5] — 죽으면 대가 끊긴다는 더 큰 명분으로 누른다.



### 5. 환약

**뜻** 알약. 모친이 소매에서 내어 먹인 것으로, 이것 때문에.

**배경** 丸藥 환약

**작품 속 쓰임** 알약. 모친이 소매에서 내어 먹인 것으로, 이것 때문에 「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」[8] 돌아온다 — 꿈이 남긴 자국이다.



### 6. 혼서

**뜻** 혼인의 증표가 되는 글.

**배경** 婚書 혼서

**작품 속 쓰임** 옥윤은 성명을 지녀 의탁 삼겠다고 생각한 뒤 혼서와 옥가락지를 몸에 품는다. 자기 신원을 확인시키려는 표지로만 뜻을 좁히지 않는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## 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**1.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**

〈보기〉

(1)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죽지 말라 이른다 / (2) 깨어 보니 혀가 나아 있다 / (3) 물에 몸을 던지자 황룡이 받아 올린다 / (4) 도사가 전생을 일러 주고 무예를 배우라 한다 / (5) 남장한 원수가 호용을 벤다

① (2)→(1)→(3)→(4)→(5)

② (1)→(2)→(3)→(4)→(5)

③ (1)→(3)→(2)→(4)→(5)

④ (1)→(2)→(4)→(3)→(5)

⑤ (1)→(2)→(3)→(5)→(4)

**2.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

① 「약을 먹여 혀가 나은 것」[10]을 보고 옥윤은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.

② 「혼서와 옥가락지를 내어」[12] 옥윤은 그것을 후문에 던지고 몸을 수중에 던졌다.

③ 「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」[14]에서 옥제는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했다.

④ 「바삐 돌아가고자 하느냐?」[14]에서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옥윤을 꾸짖었다.

⑤ 「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」[22]라 한 데서 호용은 하원수에게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.

**3. ㉤ 「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」의 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

〈보기〉

㉤ [8] 「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」

① 옥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음을 처음으로 알린다.

② 어머니가 신이한 존재임을 「오색구름이 흩어져」[8]로 확인해 준다.

**3번 선택지 계속**

③ 꿈에서의 치유가 깨어난 몸에 남아 옥윤이 그 체험을 신뢰할 근거가 된다.

④ 옥윤이 「형체 온전히 함이 상책」[10]이라 여기게 된 직접적인 까닭이다.

⑤ 「주 씨는 깊이 잠들었고」[9]와 이어져 밤이 깊었음을 알린다.

**4. [A]와 [B]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

① [A]에서 모친은 진원대선께 청하여 왔다면서, 옥윤을 구하려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.

② [B]에서 옥윤은 「일신을 보전하매」[7]라며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.

③ [A]에서 모친은 「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」[5]라며 시련의 정당성을, [B]에서 옥윤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.

④ [A]에서 모친은 옥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는 이유를, [B]에서 옥윤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.

⑤ [A]에서 모친은 「누란(累卵) 같아」[3]로 위기를 강조하고, [B]에서 옥윤은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.

**5. 윗글의 선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

① 「진원자는 본래 네 스승이니」[5]에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.

② 「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」[8]에서 비현실적 방법으로 몸을 고쳐 준다.

③ 「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」[12]에서 위기의 순간에 인물을 구출한다.

④ 「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」[14]에서 인물에게 전생의 정보를 제공한다.

⑤ 「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여」[16]에서 인물의 아버지를 직접 구해 준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